

## 엘피다, 파산 신청이 주는 시사

일본의 반도체 대표기업 엘피다가 2월 27일, 초엔고, 시장상황 악화, 차입금 상환 등의 요인으로 독자 재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파산 신청.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기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 엘피다 법정관리 신청

- 반도체DRAM업계 세계3위 엘피다메모리는 2월 27일, 도쿄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 엘피다의 부채총액은 약4480억엔(2011.3월시점)으로 제조업으로는 과거 최대를 기록
    - \* 일본정부가 09년에 공적자금 300억엔을 지원, 재건을 도모하였으나, 시장상황의 악화와 엔고로 실적 부진이 원인
    - \* 엘피다에 지원한 공적자금 300억 가운데 280억엔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어, 일본 유일의 반도체기업이 파산 가능성 큼
  -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도 엘피다의 재건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지원을 중단

### 〈엘피다 기업 개요〉

설 립	· 1999년 12월
자 본 금	· 2361억엔( '11.9.30)
대표이사	· 사카모토 유키오
업 종	· 일본의 유일 DRAM 전용 기업
부채금액	· 약4,818억(2011. 12월)

## □ 엘피다의 자력 재생이 어려운 이유

- 국제적인 DRAM 경쟁 격화, 제조경비의 고비용 구조 등으로 채산성 악화되었으며,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
  - 제품성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제3자 할당증자, 신규차입, 사채발행 등 부채규모가 5,569억엔(09.6)까지 확대
    - \* 엘피다는 09년 6월 30일 경제산업성에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 사업재구축계획을 인정받아, 일본정책투자은행을 통해 300억엔 출자를 받는 등 3대은행에서 1,100억엔의 협조융자를 받았음
  - 재무 개선노력 결과, 11년9월30일 발표된 연결중간결산에서 부채규모를 3,917억엔까지 감축
    - \* 그러나 최근 엔고와 PC용 DRAM제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업적이 악화되어 ‘11년9월 중간연결매출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1,598억만엔으로 580억만엔의 적자 기록(‘10년 9월 중간매출: 3,251억만엔)
  - 엘피다는 대만의 南亜科技, 미국의 마이크론, 중국의 SMIC 등과 자본제휴를 위해 협상을 진행
    - \* ‘12년 1월 24일 사채상환은 자기자금으로 해결하였으나, 3월말까지 550억엔의 차입금 상환, 4월2일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협조융자 670억엔 상환이 예정되어 있음
  - 게다가 12년 결산에 1200억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12년 2월 시점에서 현금예측자금이 500억엔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어 독자재생이 어렵다고 판단
    - \* 2월 3일 미국의 협상상대였던 마이크론CEO가 비행기사고로 사망하는 등, 엘피다에게 불운한 상황이 발생

## □ 일본정부의 반응

- 에다노 경산대신은 27일, 엘피다의 파산신청으로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출자금과 융자금에 손실이 발생, 최대 280억엔의 국민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

- 에다노대신은 “너무 유감스러운 사태다. 상상을 초월한 급격한 엔고, 지진과 태국홍수사태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DRAM가격의 대폭 하락 등 어려운 사업 환경에 직면한 가운데, 엘피다의 판단도 어쩔 수 없는 조치다” 라고 언급
  - \* 중요한 과제로 “국내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책이나 고용대책에 최선을 다 할 생각” 이라고 강조
- 28일 경제산업성은 엘피다 영향이 중소기업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소기업대책을 발표
  - \* 엘피다 문제로 경영에 영향이 있는 기업에게 일본정책금융금고 등이 융자 실시
  - \* 엘피다와 직접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전액을 보증하는 safety net 보증을 적용키로 함

## □ 시사점

- 법정관리로 채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제휴기업을 찾지 못하면 재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번 법정관리신청이 엘피다의 생산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DRAM 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DRAM업계 특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독과점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음
- 만약 엘피다가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대만 업체와 제휴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한국 업체와의 경쟁구조와 경쟁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

## <참고자료>

東京商工リサーチ, 倒産速報 “エルピーダ” (2012.02.27)

日本経済新聞, “エルピーダ更正法申請” (2012.02.28)